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CNBC: IMF, 올해 미 경제전망 낮춰...2.7%에서 1.8%로
- Bloomberg: '미 인플레는 기업들의 관세 반응에 달렸다'

[미국 금융]

- Bloomberg: 트럼프의 연준 비판 상황에서 금값 3천5백 불 돌파
- Bloomberg: 시장 거래자들, 트럼프 관세는 '미국 매도'를 의미

[무역 전쟁]

- CNBC: 트럼프, 관세 관련 월마트, 타겟, 홈디포 CEO와 만나
- WSJ: 미, 동남아시아 태양광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 추진

[글로벌 경제]

- WSJ: IMF, 관세 인상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경고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NYT: 미 법무부, 구글 분할 요구
- WSJ: 킴벌리클락, 실적 감소 발표와 비용 상승 경고
- WSJ: 3M, 실적 전망 유지했으나 관세 리스크 추가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CNBC: IMF slashes 2025 U.S. growth forecast to 1.8% from 2.7%, citing trade tensions

IMF, 올해 미 경제전망 낮춰...2.7%에서 1.8%로

- IMF는 올해 미 경제성장을 전망을 당초 1월에 예측했던 수치에서 0.9% 낮춘 1.8%로 새로 전망했다.
- 이는 미 관세 정책이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주는 데 따른 것으로 예상했다.
- IMF 수석 경제학자 Pierre-Olivier Gourinchas는 트럼프가 4월 2일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에 따른 경제 전망 수정치를 서둘러 분석해 발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CNBC 기사

Bloomberg: US Inflation Path Depends on Corporate America's Tariff

Response

‘미 인플레는 기업들의 관세 반응에 달렸다’

- 현재로서 미국 기업들은 관세에 따른 비용을 흡수할 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얼마나 비용을 흡수할 수 있는지에 따라 올해 인플레가 얼마나 상승할지 결정 된다.
- 지난 4분기에 미 기업들의 세후 수익은 지난 2년여 기간에 최고치로 상승했다. 그러나 올해 첫 3분기에는, 즉 트럼프의 수입 관세 발표전 기간에 수익이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전망하고 있다.
- 결론적으로 관세에 따른 가격 여파 추정치는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일부 예상은 핵심 물가지수가 올해 말에 3% 상회, 다른 전문가들은 5% 가까이 유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Gold Trades Steady on Profit Booking After Topping \$3,500 트럼프의 연준 비판 상황에서 금값 3천5백 불 돌파

- 트럼프가 연준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금은 온스 당 일시 3천5백 불을 돌파하기도 했다. 현재는 3천4백41 불에서 거래되고 있다.
- 금은 올해만 해도 32% 상승해 투자자들이 관세 전쟁 확대로 노출되고 있는 주요 금융자산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Markets Are Discovering the Real Trump Trade Is ‘Sell America’

시장 거래자들, 트럼프 관세는 ‘미국 매도’를 의미

- 트럼프의 파월 의장 해임 위협을 포함해 연준을 옥죄기 시작하는 상황과 관세 전쟁은 미국 경제의 우위를 보여주는 금융 자산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다.
- 전통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 간주된 달러와 국채는 갑작스럽게 매력적인 자산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거래자들은 미국의 예외주의를 중폭시키는, 이른바 ‘트럼프 거래’를 예상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를 ‘미국 거래’ 매도 상황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Bloomberg 기사

[무역 전쟁]

CNBC: Trump hosts Walmart, Target and Home Depot CEOs for tariff meeting

트럼프, 관세 관련 월마트, 타겟, 홈디포 CEO와 만나

- 트럼프는 어제 월요일 관세 정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월마트, 타겟, 홈디포 CEO들과 만났다.
- 트럼프의 공격적인 관세 조치로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 경영자들과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주는 가운데 이번 만남이 이뤄졌다.
- 이날 만남 이후 경영자들은 “무역정책의 향후와 관련된 논의가 생산적이었다”라며 미 소비자들을 위한 가치에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한편, 월마트는 다른 경쟁 소매업체들보다 관세 조치에 상대적으로 다 나은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체 유통망이나 가격 경쟁력 등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CNBC 기사

WSJ: U.S. Slaps Steep Tariffs on Southeast Asian Solar Imports

미, 동남아시아 태양광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 추진

- 중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동남아시아 4개국인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산 태양광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들 국가에서 중국 생산업체들이 지난 수년간 공장을 차려 값싼 태양광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 적발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 관세는 최대 3,521% 부과되어 이들 국가의 태양전지가 사실상 미국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의도이다.
- 미 연방 상무부는 지난 1년간의 조사를 통해 중국업체들이 이들 국가에서 생산한 태양전지와 패널이 아주 싼 가격에 미국으로 덤핑 되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WSJ 기사

[글로벌 경제]

WSJ: Global Economy Set for Slowdown as Tariffs Herald New Era, IMF Says

IMF, 관세 인상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경고

- IMF는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오른 관세가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수준을 넘었다고 밝히며, 관세 영향이 세계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IMF의 전망은 4월 2일까지 발표된 관세 조치를 기반으로 한다.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은 3.3%에서 2.8%로 하향됐다. 또한 2026년 성장률 전망도 3.3%에서 3.0%로 낮췄다.

- IMF는 멕시코가 주요국 중 가장 큰 타격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은 기존 1.4% 증가에서 0.3% 감소로 대폭 하향됐다. 관세 인상의 영향으로 중국 경제와 유로존 성장률도 하향 조정했다.
- IMF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재편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 달러의 중심적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또한 IMF는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감소의 주 원인은 글로벌화가 아니라 기술 발전과 자동화라고 설명했다. 관세는 일자리 회복에 효과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2026년 이후에도 관세의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것이라며, 새롭게 보호 받는 산업들이 경쟁자가 줄어들고 제품 개선 압박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NYT: U.S. Asks Judge to Break Up Google 미 법무부, 구글 분할 요구

- 미 법무부는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포함한 기업 분할을 요구하며, 3주간의 청문회를 시작했다. 판사 Amit P. Mehta는 여름까지 구글에 대한 시정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 구글은 광고 기술 사업 해체 위기와 포트나이트 제조사와의 반독점 소송 패소 등 연이은 법적 타격을 받고 있다. 청문회에서 구글 측은 법원이 애플, 모질라, 삼성 등과의 검색 엔진 기본 설정 계약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광범위한 기업 해체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독점을 AI 시장으로 확장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가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감독을 강화할 계획임을 시사한다.

NYT 기사

WSJ: Kimberly-Clark Net, Sales Down on Lower Prices, Company Warns of Cost Rise 킴벌리클라크, 실적 감소 발표와 비용 상승 경고

- 클리넥스와 허기스 등으로 알려진 미 일상용품 기업 킴벌리클라크는 1분기 순이익이 5억6700만 달러(주당 1.70달러)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매출은 6% 줄어든 48억4000만 달러를 기록해 분석가 예상치를 하회했다. 미국 내 유기적 매출도 가격 인하 영향으로 1.6% 하락했다.
- 회사는 관세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비용 증가를 경고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미 달러 약세로 해외 매출 감소 전망은 기존 예상보다 다소 완화됐다.

WSJ 기사

WSJ: 3M Keeps Guidance But Adds Tariff Hazards

3M, 실적 전망 유지했으나 관세 리스크 추가

- 3M은 2025년 조정 주당순이익 가이던스를 7.60~7.90달러로 유지했지만, 이 수치가 관세로 인해 20~40센트 하락할 수 있다는 '관세 민감도(tariff sensitivity)'를 새로 추가했다.
- 3M은 1분기 순이익 11억2000만 달러(주당 2.04달러)를 기록했으며, 조정 주당 순이익은 1.88달러로 시장 예상치(1.77달러)를 웃돌았다. 매출은 59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 감소했지만, 예상치를 상회했다.

WSJ 기사

[보고서]

트럼프 취임 100일도 안돼 '셀 아메리카'...금융패권 흔들리나

미국 달러·주식·국채 '트리플 약세'

"외국인, 美주식·국채·회사채 4경4천조원 보유"

"당장 대체할 자산 없어"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밀어붙인 관세 정책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압박 행보 등으로 인해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방위적인 관세 전쟁을 본격화한 이후 미국의 주가와 국채 가격, 달러화 가치가 트리플 약세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미국의 금융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마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상대로 기준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하며 충격파가 증폭됐다면서, 미국 자산의 펀더멘털과 미국의 경제 우위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